

서울시의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

송인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의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

	요약	3
I.	서울시의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황	4
II.	민간기여 녹지에 대한 인식과 영등포구 사례 분석	9
III.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의 활성화 방안	13

송인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165
injusong@si.re.kr

최근 공원녹지의 총량은 증가하고 시민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쾌적한 도시환경의 근간이 되는 도심 내 생활권 녹지의 소외지역은 여전히 존재하고 녹지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도의 공원녹지 조성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이나 기업이 함께하는 녹색 조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부문의 녹지 조성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민관협력형 녹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공원녹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주도의 공원 조성은 역부족

서울시의 생활권 공원면적은 51.18km²,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4.86m²이며 지난 10년간 조경녹지면적은 2000년 3.1%에서 2010년 3.6%로 증가하였다.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생활권 녹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시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과 연계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획, 집행,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 제고로 생활권 공원녹지의 조성 확대가 가능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관련 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 민간기여 공원녹지를 알고 있는 시민은 12%에 불과하다. 또한 향후 공원녹지 조성에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40.7%)보다 없는 시민이 46.4%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사례 분석 결과, 민간기여 녹지로 생활권 녹지를 조성할 경우 공간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녹지가 분포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민들의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권녹지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민관협력형 공원녹지 조성전략으로 전환

민간기여 공원녹지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자원 봉사, 현물지원, 토지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바우처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단계별로 실행하되, 우선적으로 토지가 비교적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는 대상지에 먼저 시행한다. 셋째,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주체별로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I. 서울시의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황

공원녹지의 총량은 증가하나 생활권녹지 수요는 여전히 존재

현재 공원은 전체면적의 28.09%이며 조경녹지도 증가 추세

- 2012년 서울시 공원수는 2,643개소, 면적은 170km²로 이는 행정구역 면적(605.25 km²)의 28.09%를 차지¹⁾
- 전체 공원 중 144.93km²가 조성이 완료된 공원으로 조성률은 85.3%
- 조경녹지 면적도 2000년 1,883ha에서 2005년 2,109ha, 2010년 2,173ha로 총량적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²⁾
- 공원 및 조경 면적은 지속적인 증가세이며 시민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나 삶의 질 증진에서 자연환경은 여전히 우선순위로 조사
- 생태복지도시 연구결과에 의하면 거주지역의 녹지보전 및 자투리공간 녹화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요도에서 자연환경은 여전히 우선순위

생활권 공원면적은 4.86m²/인이나 소외지역도 4.6%를 차지

- 생활권 공원면적은 51.18km²이며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4.86m²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의 면적은 14.88km²로, 행정구역 면적의 4.58%를 차지
- 자치구 면적 대비 소외비율이 높은 구는 구로구(7.36%), 마포구(5.70%), 강동구(5.21%), 중랑구(4.81%), 영등포구(4.60%) 등이며, 반대로 소외비율이 낮은 구는 종로구(0.04%), 성북구(0.53%), 노원구(0.56%), 양천구(0.57%), 성동구(0.65%) 등으로 분석

1)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2)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2000, 2005, 2010)

공공주도의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은 한계

생활권 녹지 조성은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한계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권 녹지 조성 관련 사업은 22개 유형으로 ‘한뼌 동네 공원 조성’, ‘벽면녹화 사업’, ‘옥상녹화 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등이 대표적
- 벽면녹화 사업이 937건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었으며, 다음으로 열린학교 조성사업(815건), 옥상공원 조성사업(609건),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451) 순
- 그러나 녹지 조성을 위한 부지 및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

최근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추세

- 민간과 연계한 녹지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계획, 집행,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세
- 서울시와 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 민간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은 총 7개 유형으로 ‘주민참여형 동네숲가꾸기’, ‘한뼌 동네 공원 조성’, ‘사회복지시설 녹지 조성’ 등
- 2007년 이후 민관 공동 참여로 425,923㎡ 면적의 녹지가 추가로 조성되었으며 이는 보라매공원 면적과 비슷

표 1. 민관연계 생활권 녹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 및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현황(~'12)
한뼌 동네 공원 조성	10분 거리인 500m 이내 공원서비스가 전무한 곳에 소규모 공동체 공간인 쌈지마당을 주민참여 방식으로 조성	- 2개소 - 350㎡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주민쉼터 조성	사유지에 대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보상 없이 도시녹화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제공	- '11부터 5개소 - 121,991㎡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도시녹화	민관 파트너십으로 추진하여 시민참여형 도시녹화(동네숲, 텃밭) 사업을 진행	- '07부터 21개소 - 11,155㎡
사회복지시설 녹지 조성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녹색복지를 실현	- '08부터 19개소 - 19,356㎡
주민참여형 동네숲가꾸기	생활공간 주변 자투리공지, 골목길 등 시민참여를 통해 녹지공간을 조성	- 24개소
나무심기 추진사업	민관 파트너십으로 나무심기를 활성화하고 민간참여를 통해 녹화활동을 지원	- 1,100만 그루

시민·기업이 함께하는 다양한 녹지 조성사업이 부상

민간기여 공원녹지의 조성에는 다양한 참여유형이 존재

-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은 시민,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등 민간이 노력봉사, 현금기부, 현물지원, 토지기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참여가 가능

표 2. 공원녹지 조성 시 가능한 민간기여의 유형

유형	내용
노력봉사	- 공원녹지 조성·관리 시 재능기부(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 공원녹지 조성·관리를 위한 노력봉사(서울그린트러스트 우리동네숲 등)
현금기부	- 공원녹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기부 (그린트러스트, 사회복지시설 숲가꾸기, 한평 공원 지원 등)
현물지원	- 장비 또는 나무묘목 지원 등(유한킴벌리 숲가꾸기 등)
토지기부	- 일본의 민설공원제도, 국내 민간공원제도 등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토지 제공(기업공원 : 울산대공원, 안양삼덕공원 등) - 녹화계약, 녹지활용계약 등과 같이 일정기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제공(천호동성당 등) -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기업, 개인 등이 토지를 제공

다양한 유형 중 녹지활용계약은 민간협력의 물꼬 역할을 담당

- 녹지활용계약은 식생이 양호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보상 없이 지역 커뮤니티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드는 녹화사업
 - 2012년까지 서울시에 4개소가 조성되었으며 현재 3개소가 조성 중
 - 2013년까지 총 사업비 2,630백만원을 투자하여 132,771㎡에 녹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
- 서울시와 천호동성당은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약 3,300㎡에 주민쉼터를 조성
 - 이를 통해 서울시는 토지보상비 약 100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천호동성당은 계약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

다양한 협력방식의 공원녹지 조성으로 사회공헌에 기여

- 민간기여 공원녹지는 대체로 시민단체나 기업이 주체가 되어 공원녹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
 - 서울시 민간기여 공원녹지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생명의 숲 등 두 시민단체가 기업과 협력하여 조성한 것이 대부분
-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우리동네숲 운동을 추진
 - 우리동네숲 운동은 자투리땅에 지역주민과 함께 녹지공간을 창출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의 25개소에 약 16,133㎡의 공원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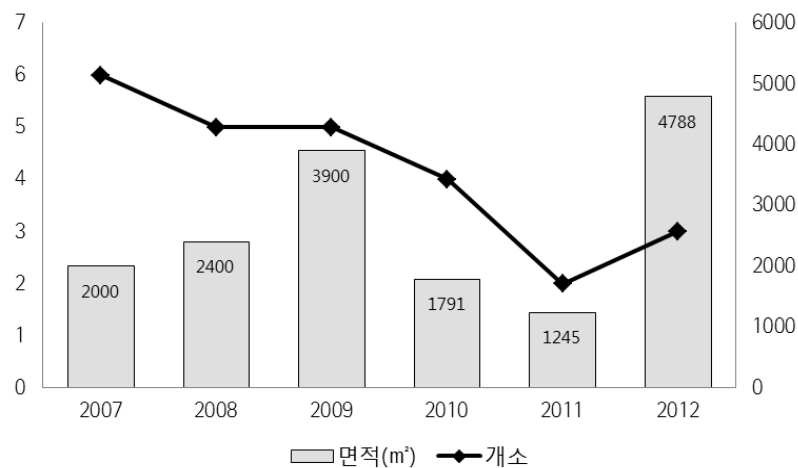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우리동네숲 조성현황(2007~2012)

- <생명의 숲>은 모델학교숲, 복지시설 내 숲가꾸기, 그 외 기업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 모범적인 학교숲을 육성하기 위해 ‘모델학교숲’을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
 - 사회복지시설 내 숲가꾸기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내에 나무심기, 숲체험프로그램, 생태교육 등 복지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 그 외, 기업과 협력하여 나무심기행사, 숲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 〈서울녹색시민위원회〉의 한평공원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신한은행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2011년까지 총 31개소의 공원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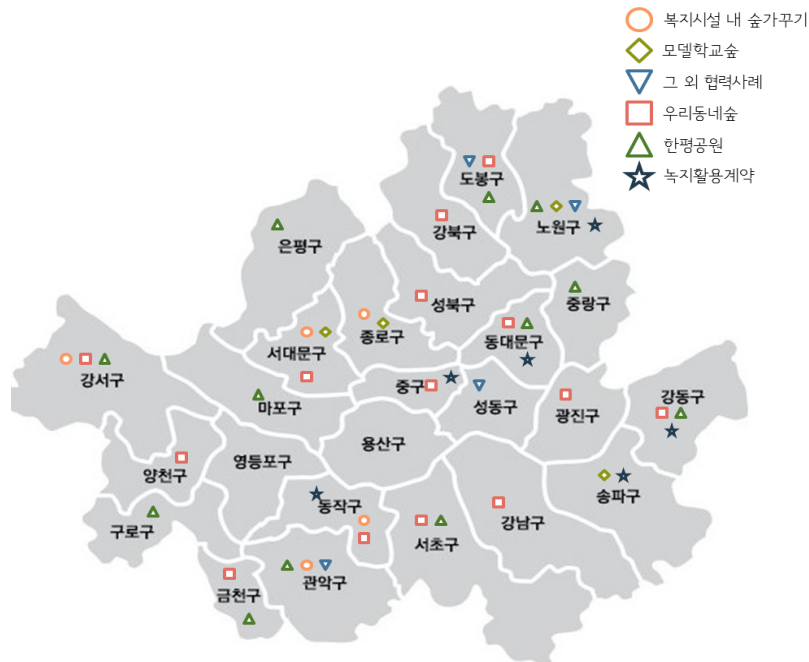


그림 2. 자치구별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현황

시민단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은 주로 재정부문을 후원

- 시민단체는 민간기여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부지 및 재정 마련을 위해 기업참여를 유도하거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금을 모금
 -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다양한 파트너십 형태로 공원을 조성
 - 일방적인 공원 조성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공익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 기업 주체로 민간기여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대부분을 차지
 - 공원 조성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하거나 조경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

II. 민간기여 녹지에 대한 인식과 영등포구 사례 분석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한 수준

- 민간기여 공원녹지를 알고 있는 시민은 12%에 불과
- 대부분의 시민들은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지가 미흡한 수준(88%)
- 민간기여 공원녹지를 알고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방문여부를 조사한 결과 54%가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이 서울숲을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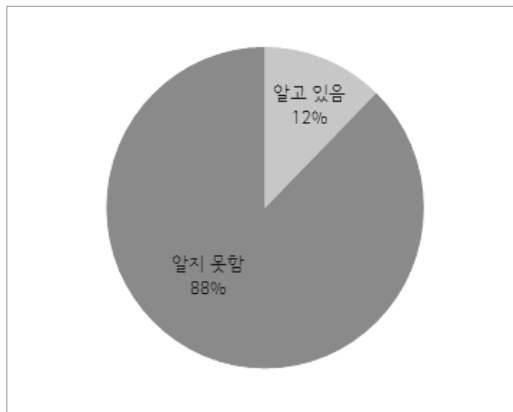


그림 3.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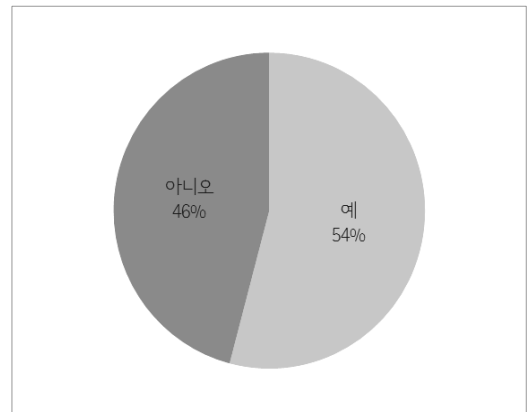


그림 4. 민간기여 공원녹지 방문여부

설문조사 개요

- 대 상 : 영등포구 시민 300명, 기업 66개(응답 : 7개)
- 기 간 : 2013년 3월
- 목 적 :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에 대한 기업 및 시민 인식조사
- 주요내용 :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참여의사,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기업에 대한 선호도,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활성화 방안 등

민간기여방식은 아직 시민참여도가 낮고 기업관심도 저조한 편

- 현재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는 1.7%에 불과
- 향후 공원녹지 조성에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도 40.7%로 아직은 참여의사가 없는 시민이 좀 더 우세(46.4%)
- 참여 선호유형으로는 노력봉사, 현물지원, 현금후원 순으로 조사
- 그러나 문화공연, 자원봉사활동인증 등 참여동기를 부여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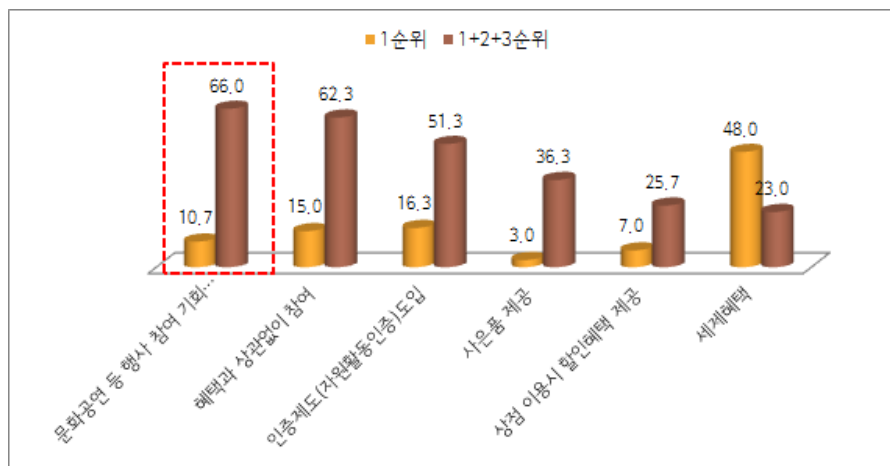


그림 5. 주민참여 유도방안에 대한 선호도

- 기업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기여 공원 녹지와 관련된 활동에는 아직 관심이 저조한 상황
-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공원 조성이나 사회복지시설 내 녹지 조성을 선호
- 공원녹지 조성의 참여방법으로는 노력봉사가 많은 반면 현물지원이나 기업소유 토지 사용허가 또는 이용 동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 기업사옥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

사례 분석 결과,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의 잠재력은 풍부

영등포구의 경우, 총 40개소 민간기여 공원녹지의 추가조성이 가능

- 영등포구의 공원녹지 면적은 현지 여건상 자치구 중에서 하위권
 - 상주인구, 면적, 기업분포, 공원녹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영등포구를 민간기여 공원 녹지 조성의 사례대상지로 선정
 - 현장조사 결과, 대상지 중 40개소가 녹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영등포구는 약 97,023㎡의 추가 녹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설지는 4개소(703㎡), 주거지는 11개소(26,536㎡), 하천 및 습지는 2개소(56,400㎡), 상업 및 업무지는 8개소(2,269㎡), 유흥지는 7개소(2,789㎡), 조경녹지는 6개소(3,175㎡), 교통시설지는 4개소(5,151㎡)의 녹화가 추가적으로 조성 가능
 - 상기 대상지가 모두 녹화될 경우 영등포구의 녹지율은 0.39% 증가

사례대상지 선정 및 조사방법	
- 목 적 :	영등포구 녹화여건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여 녹지 조성의 가능성 조사
- 내 용 :	기존 민간기여 공원녹지 사례 조사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여건 파악 비오톱유형에 따른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대상지 파악
- 대상지 :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텃밭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민요구가 많은 대상지(구도심 중심) 안양천, 도림천 1,000대 기업 중 영등포구 소재 66개 기업 미조성 공원 및 유흥지 어린이공원 중 면적 3,000㎡ 이상인 공원과 설문응답 대상지에 해당하는 공원 서울시 가로띠녹지조성계획 중 영등포구에 해당하는 도로

- 사례대상지의 녹화는 공간적으로 영등포구 전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민의 생활녹지 체감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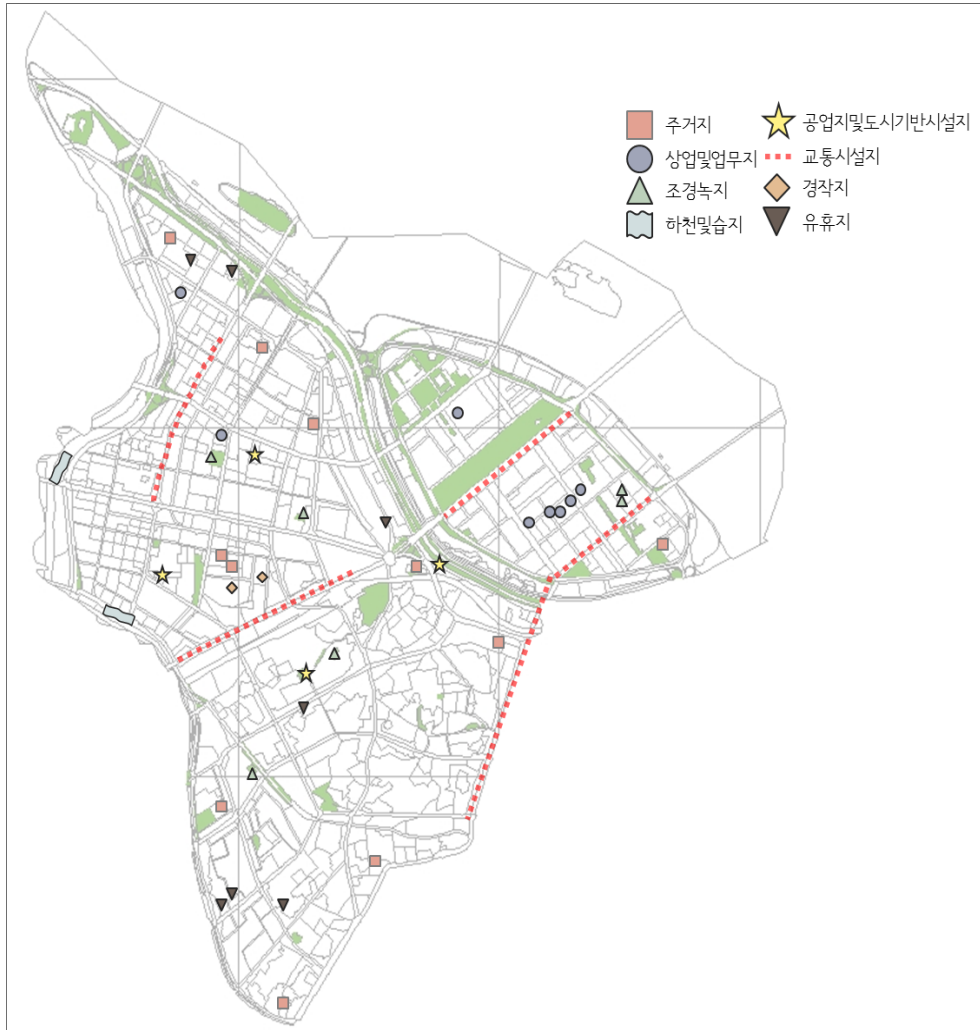


그림 6.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가능지

Ⅲ.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의 활성화 방안

공공주도에서 민관협력형 녹지 조성전략으로 전환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관한 인식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

-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이 초기단계로서 적극적인 인식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
- 서울시 및 각 유관기관이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정보 및 참여방법을 제공

생활권 녹지의 소외지역을 우선으로 민관협력형 녹지 조성을 추진

-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주체별 역할분담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지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마련이 필요
- 시민은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참여
- 비영리민간단체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참여를 유도
- 기업은 예산지원이나 임직원 자원봉사 등을 중심으로 추진
- 행정기관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교류의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

주요 추진 전략

주요 과제	추진 전략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 제고	-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적극적 홍보전략 마련 - 기업 특성에 적합한 민간기여 녹지 조성방안 제시 - 문화바우처와 연계하여 민간기여 녹지 조성에 참여 유도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별 실행	- 단기적으로 토지가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접근 - 중장기적으로 사유지 및 기업사옥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
민간협력을 위한 역할분담 및 파트너십의 활성화 유도	-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역할분담 - 녹화지원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민간기여 도시녹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도적 지원을 위해 관련 법규 정비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 제고

민간기여 공원녹지의 활성화를 위해 인지도 제고가 관건

- 서울시 및 각 구별 홈페이지에 ‘민간기여 공원녹지 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
 - 민간기여 공원녹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참여방법을 공지
 - 공원녹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재능기부 등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확산
- 기업은 가시적인 사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녹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대부분 내부방침에 따라 참여의사를 결정
 - 가시적 효과가 분명한 사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내의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선호
 - 특히, 사회복지시설 내의 녹지 조성은 기업의 선호도가 높고 홍보효과 또한 큰 편이므로 임직원을 위한 참여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하여 기회를 제공

문화바우처와 연계하여 민간기여 녹지 조성에의 참여를 유도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부문을 중심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
 - 특히, 노인계층의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추진
- 자원봉사, 현물지원, 토지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시 문화바우처와 연계하여 전시 및 문화공연의 혜택을 부여
 - 참여자에게 일정금액의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단계별로 실행

단기적으로는 토지가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는 대상지 중심으로 접근

- 사회복지시설, 법정 공원, 미조성 공원, 유휴지, 가로띠 가능 주요도로 등에 우선적으로 시행
-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가능 대상지 중 토지가 확보되는 대상지는 시민단체와의 연계, 홍보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중·장기적으로는 사유지 및 기업사옥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그린트러스트 활성화를 통해 사유지에 공원녹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시민 및 기업들의 기부를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노력봉사, 현물지원 등을 통해 공원녹지를 조성
-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녹지 조성 사업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

표 3. 단계별 실행방안

구분	대상지	주요내용
단기	· 사회복지시설 · 법정 공원 · 미조성 공원 · 유휴지 · 가로띠 가능 주요도로	- 토지가 비교적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우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 기업의 현물기부 유도 - 기업 및 주민의 노력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중기	· 주거지 · 유휴지 일부	- 사유지는 토지매입이 필요 - 그린트러스트 활성화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원녹지를 조성
장기	· 기업사옥 건물	- 기업이 사옥개방에 회의적이므로 민간기여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기업의 관심도가 제고된 이후 사업 유도

민관협력을 위한 역할분담 및 파트너십의 활성화를 유도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주체별 역할을 분담

- 민간기여 공원녹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위를 구체화
- 비영리민간단체는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된 기금을 모금
- 기업은 예산지원이나 임직원 자원봉사 등을 통해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에 참여
- 시민은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해 참여
- 행정기관은 문화바우처와 연계하여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전시 및 문화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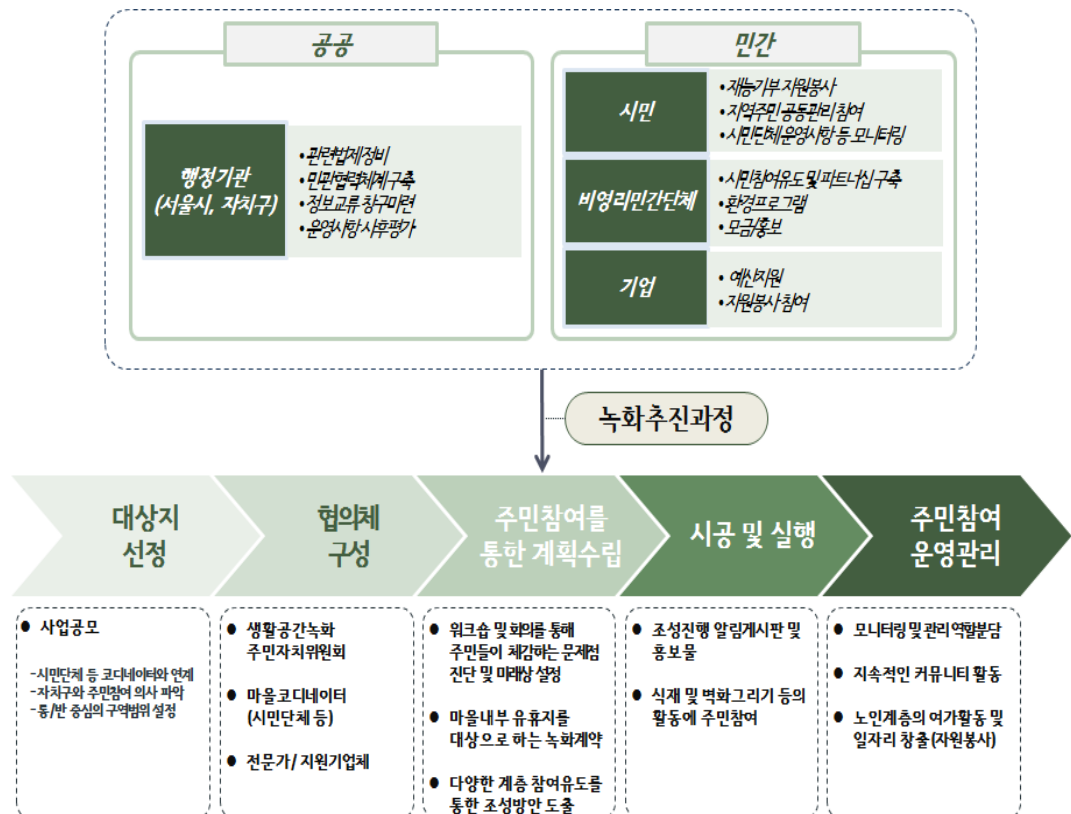


그림 7.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 시 민관협력체계(안)

-
- 추진과정은 대상지 선정, 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 시공 및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가 유지되도록 역할을 분담

민간기여 녹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

- 민간기여 녹화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
 - 공원녹지 조성에 참여의사가 있는 민간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수행
 - 전문가 컨설팅 그룹을 운영하여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 및 자문을 담당
 - 향후 민간기여 녹지 추진실적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민간기여 녹화지원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인증
-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 주체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실효성을 제고
 - 코디네이터는 비영리민간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주민을 연계하고 계획,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을 함께하며 시민참여를 유연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
 -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다양한 요구 수렴 및 갈등 해소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 민간기여 도시녹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이를 통해 민간기여 공원녹지와 관련된 교육 및 녹화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여 공원녹지 DB를 구축하여 일괄적으로 관리
 - 정보를 공개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 체계적인 DB를 구축하여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갱신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
-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된 법제도를 재정비
 - 민간기여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된 법제도의 검토 결과, 현재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낮은 편

- 민간기여 녹화지원위원회, 민간기여 녹화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양성, 민간기여 도시 녹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새로이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민간기여 녹화지원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중재 • 추진실적 평가
민간기여 공원녹지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디네이터 양성
민간기여 도시녹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여 공원녹지 DB 구축 •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공 • 민간기여 공원녹지 관련 정보 및 신청

그림. 8. 민간기여 녹화지원시스템(안)